한국학연구 제73집 | 497~529쪽 | 2024.5.

# 신중국 건국 전후 번역된 '북조선'*

##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의 번역과 간행을 중심으로 -

劉惠瑩**

〈차 례〉

1. 들어가며
2. 전범(典範)에서 중공의 대변인으로: 신중국 건국 직전까지의 소련 문학 번역
3. 냉전체제 형성기 협력의 실상과 허상: 혼종적 텍스트의 탄생
4. 동일한 멜로디, 상이한 변주: 두 중국어 번역본의 비교
5.『북선 유기』의 정전화(正典化)
6. 나오며

**[국문초록]**

신중국의 '북조선' 담론은 1940년대 소련 문학 번역에서 기원했다.『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는 건국 전후 여러 차례 번역, 간행되어 '북조선' 담론의 형성 과정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중소우정의 상징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항미원조' 운동의 선전물로 변모하여 신중국의 언론 중심으로 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신중국의 정치 체계 변화와 그에 따른 지식질서의 재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중국어 번역본은 기록자, 통역자 · 전달자 및 번역자 각각의 서로 다른 시각이 혼합되어 있는 혼종성을 드러내며, 이는 냉전체제 형성기 소련, 북한, 그리고 중국 간의 협력이 실제로는 얼마나 표면적인지를 보여준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소련인들은 객관적인 기록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 단계의 전달과 통역을 거쳐 그들에게 도달한 텍스트는 조작된 허위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의 두 가지 문예 생산 체제 하에서 생산된 번역본들은 각각의 독특한 시각과 입장을 반영하는 일종의 '다시 쓰기'로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1S1A5A2A03066973), 그리고 山東大學東北亞學院人文社科研究重大項目 "解構與建構: 數字人文視域下的東亞共同體研究"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山東大學 東北亞學院 부교수

소련 주도로 제작된 번역본이 소련의 지시를 많이 고려하는 것에 비해, 중공의 독자적인 기획물은 중공의 정책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신정권의 자주성을 부각시킨다. 후자는 신중국 초기의 역사 생산과 담론 재편에 적극 참여하면서 신화서점의 일원화를 통해 정전화(正典化)되었다.

[주제어]『우리는 조선을 보았다』, 신중국, 소련, 북한, 번역

## 1. 들어가며

통념과 달리 1949년 10월 6일 북한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기 전까지 중공 지도층과 조선노동당 간에는 거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1] 그러다가 1년 후인 1950년 10월 19일, 중공은 지원군을 파견함으로써 신중국을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도와준 유일한 나라로 만들었다. 과연 신중국 건국 전후 — 대체로 1949년 10월을 전후한 1년간 — 라는 시기에 북한에 대한 중공의 관점은 어떠한 것이고 북한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북조선'을 담론화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신중국 건국 전후『우리는 조선을 보았다(Мы видели Корею)』의 여러 차례에 걸친 번역과 간행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는 1946년 여름부터 약 5개월 간 북한에서 체류한 소련 작가동맹 소속의 소련인 기토비치[2]와 부르소프[3]에 의해 공저된 책이다. 이 책은 1948년 2월 레닌그라드의 '젊은 친위대' 출판사에 의해 러

1) 沈志華,「若卽若離: 戰後中朝兩黨關係的初步形成(1945-1950)」,『近代史硏究』2016(02),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2016, 24쪽.

2) 기토비치(Александр Ильич Гитович, 1909~1966), 시인, 번역가.『우리는 조선을 보았다』이외 북한 기행 시집『조선 시편(Стихи о Корее)』(1950), 창작시와 번역시를 동시에 수록한 시집『아시아의 별 아래서(Под звездами Азии)』(1955), 번역 시집『중국 고전 서정시(Лирика Китайских классиков)』(1962) 등이 있다. 중국어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중국학에 정통한 연구자들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한시를 러시아어로 많이 번역했다. 1950~1960년대에 시를 통해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월경(越境)을 성공적으로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3) 부르소프(Борис Иванович Бурсов, 1905~1997), 교수, 문예 이론가, 소련작가협회 이사. 주요 저서로는『혁명적 민주주의자의 미학의 리얼리즘 문제(Вопросы реализма в эстетике революционных демократов)』(1953),『고리키의「어머니」와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제(Роман М. Горького《Мать》и вопросы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реализма)』(1955) 등이 있다.

시아어로 처음 출간되었으며, 이후 곧바로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북위 38도'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4] 그해 10월의 '북조선'을 시작으로 '북선 유기(北鮮遊記)', '북조선 유기(北朝鮮遊記)',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我們看到了朝鮮]' 등 4 가지 제목으로 1951년 1월까지 총 15회 이상의 중국어 번역본이 간행되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했던 중국인들이 이 신생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얼마나 대단한 호기심과 열정을 불태웠는지를 투사하는 동시에, 신중국 건국 전후 '북조선' 담론의 빈자리를 '소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채우려는 중공의 의도를 시사한다.

그러나 '소련'이라는 냉전적 기호의 등장으로 인해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 소련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대화가 결국 소련, 북한, 중국 세 나라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양대 진영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직전에[5] 정부의 파견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기록한 소련 저자의 글 자체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이고,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북한 역시 '통역'과 '전달'을 통해 텍스트 생산을 조종했다. 가필과 재조합을 거친 중국어 번역문은 이 글을 중국인의 소련, 북한 인식까지 포함한 더 복합적인 산물로 재생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의 중국어판은 더 이상 단지 소련 저자의 여행기가 아니라 소련, 북한, 중국 세 나라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프로파간다가 되었다.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어 번역본이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분류되어 각각 중공의 두 가지 문예 생산 체제를 대표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국민당 지배 지역(이하 '국통구'라 함)에서 '소련' 간판을 걸고 활동을 펼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당 점령 지역(이하 '해방구'라 함)에서 중공의 문예 정책을 즉시 집행한 것이었다. 두 계열의 중국어 번역본은 1950년 8월까지 병존하였으나 결국 후자만 주류 '북조선' 담론에 합류하여 남게 되었다. '북조선'에

4) 蘇聯駐華大使館編譯處 編, 「國際簡訊」, 『新聞類編』 第1659號, 1948.7.23, 32쪽.
5) 양대 진영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1947년 9월 말에 개최된 '수 개국 공산당 대표자들의 보도회의'에서였다. 張盛發, 『斯大林與冷戰』,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222~223쪽 참조.

대해 이야기하는 후자의 화법이 신중국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전자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에 대한 연구는 많이 미비한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는 2006년 한글 번역본[6]이 출간되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행선은 소련 저자의 정치적 주장을 밝혔고 김진영은 텍스트에 나타난 조선 전설과 김일성상의 심층적 의미를 분석했다.[7] 본 논문은 이 책의 중국어 번역본을 연구대상으로 신중국 초기 '북조선'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냉전체제 형성기에 소련, 북한, 중국 세 나라 간의 협력이 실제로 어떠한 허구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신중국 건국 전후의 소련 문학 번역 붐에서『우리는 조선을 보았다』가 차지한 위치를 조명하고, 소련의 기록자, 북조선의 통역자 · 전달자, 그리고 중국의 번역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텍스트의 혼종성을 검토하며, 서로 다른 문예 생산 체제에 속한 번역본들을 비교하여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왜 해방구의 번역이 정전화(正典化)되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2. 전범(典範)에서 중공의 대변인으로: 신중국 건국 직전까지의 소련 문학 번역

러시아 · 소련 문학은 처음부터 모범적인 문학으로 중국에 번역, 소개되며 중국 현대문학의 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번역의 역사는 187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8] 본격적인 대규모 번역은 5 · 4 운동 시기 중국 신문

6) 한글 번역본『1946년 북조선의 가을: 우리는 조선을 다녀왔다』(A. 기토비차, B. 볼소프 저, 최학송 역, 글누림, 2006)는 1949년 이쩐[伊眞] 번역한 중국어판의 중역이다.

7) 이행선,「해방공간, 소련 · 북조선기행과 반공주의」,『인문과학연구논총』36,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99~100쪽; 김진영,「언어의 기념비: 해방기 '조소(朝蘇)친선'의 서사와 수사」,『러시아연구』31(1),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1, 110~111쪽; 김진영,「스탈린의 '태양' 아래: 김일성 형상의 원형을 찾아서」,『러시아연구』32(2),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2, 77~79쪽.

8) 천찌안화[陳建華]에 따르면 중국에 처음으로 번역된 러시아 작품은 딩웨이량(Martin William

학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루쉰[魯迅]을 비롯한 신문학 운동의 중심인물들은 러시아 · 소련 문학을 중국 신문학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아 문예 이론과 문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번역했다.[9] 이어 1920년대 후반 '혁명문학'이 전개됨에 따라 소련 문학은 '혁명문학'의 전범으로 간주되어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다.

중일전쟁의 발발을 전후하여 소련 문학 번역은 민족독립운동의 중요한 일환으로 여겨지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위대한 애국 전쟁'을 소재로 한 번역 작품들을 통해 항일을 응원했던 것이다.[10] 1935년 10월 25일, '중소문화협회(中蘇文化協會)'[11]가 난징[南京]에서 창립되어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는 기관지『중소문화(中蘇文化)』를 창간했다. 특히 1941년 독소전쟁 발발 이후 소련이 극동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을 강화한 것과 1942년 '옌안[延安] 문예 좌담회'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이 문예를 혁명의 무기로 삼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소련 문학은 중국 번역 문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12] 1942년 9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상하이에서 '소상시대서보출판사(蘇商時代書報出版社)'를 설립하였다.[13] 일본 치하의 상하이에서 활동하기 위해 '소련의 상업'

---

Alexander Parsons, 중국명: 丁韙良)에 의해 번역되어『중서문견록(中西聞見錄)』창간호(1872년 8월)에 수록된「러시아인의 우화[俄人寓言]」였다고 한다. 陳建華,「從〈俄人寓言〉到克雷洛夫寓言: 談談中國早期的俄國文學譯介」,『中國比較文學』1996(01), 中國比較文學學會, 1996, 90~98쪽.

9) 루쉰은 "내가 소비에트 문학을 읽는 것은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서다. 중국에게는 아직도 전투적인 작품이 긴요하기 때문이다."하고 밝힌 바 있다.(魯迅,「答國際文學社問」,『魯迅全集 第六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19~20쪽) 통계에 따르면, 루쉰은 15개국의 작가 근 백 명의 작품 200여 편을 번역했는데 그중 러시아 · 소련 문학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한다. 戈寶權,『中外文學因緣: 戈寶權比較文學論文集』,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3, 254쪽.

10) 이 사실은 마오둔[茅盾]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茅盾,「近年來介紹的外國文學: 國際反法西斯文學的輪廓」,『文哨』1, 重慶建國書店, 1945, 3~14쪽.

11) 입법원장 쑨커[孫科]가 회장을 맡았으며, 주소련 대사 옌후이칭[顔惠慶]과 주중국 소련 대사 보고몰로프(Дмитрий Васильевич Богомолов) 등이 명예회장을 맡았다.「中蘇文化協會成立」,『蘇俄評論』9(5), 蘇俄評論社, 1935, 3~4쪽.

12) 참고로 1942년 5월 30일에 궈모러[郭沫若]는 "중국 사람들도 소련 문학에 가장 큰 관심을 보입니다. 수량으로 보면 영미 문학을 초과할 것입니다."하고 지적한 바 있다. 郭沫若,「再談中蘇文化之交流: 一九四二年五月三十日在中蘇文化協會講」,『郭沫若全集 文學編 第19卷 · 今昔集』, 人民文學出版社, 1992, 199쪽.

13) 지하당원 쟝춘팡[姜椿芳]은 중공의 위탁을 받아 소련 타스 통신사(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이라는 명판을 내걸고 '소일중립조약(蘇日中立條約)' 아래에서 '레닌', '사회주의', '볼셰비키' 등을 선전할 수 있었다. 이 출판사는 창립 전인 1941년 8월에 이미 영어판『매일전신(每日戰訊, Daily war News)』과 중국어 주간지『시대잡지(時代雜誌)』를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1942년 11월에는 러시아 혁명 25주년을 기념해 월간지『소련문예(蘇聯文藝)』를 창간했다.『소련문예』는 중국 최초의 소련 문학 전문 잡지였다.『젊은 친위대』등 중국 대중에게 잘 알려진 소련 소설들은 이 잡지에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소상시대서보출판사'의 설립은 소련 문학 번역이 점차 중공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비록 소련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14] 겉으로는 소련인 발행자를 내세웠지만 '소상시대서보출판사'는 실제로 중공의 선전기관으로 그 정책이나 해방구의 실황을 직접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련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선전했다.[15] 그런 의미에서 소련 문학이 단순한 전범 역할에서 벗어나 중공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전까지 소련 문학 번역이 대부분 중역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이 출판사는 원본을 직번역함으로써 정확성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며[16] 소련 타스 통신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공받아[17] 실시간 특징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많은 작품들이 소련에서 발표되는 대로 곧바로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소련 문학 번역이 중공의 권력 아래 편입되면서 두 가지 계열로 나누어 각각 서로 다른 문예 생산 체제를 형성했다. '소상시대서보출판사'가 일제 치하의 국통구에서 소련 문학 번역을 주도했는가 하면 해방구에서는 '신화서

---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의 중국지사장 로고포(B. H. PorOB, 중국명: 羅果夫)와 합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설립 과정과 출판 성과에 대해서는 쟝춘팡과 로고포의 회상문을 참고할 수 있다. 姜椿芳,「我與時代出版社: 從『時代』雜誌到時代出版社」,『姜椿芳文集 第九卷』, 中央編譯出版社, 2012, 307~316쪽; 羅果夫,「時代書報出版社五年」,『時代雜誌』222, 上海時代書報出版社, 1947, 4~7쪽.

14) 출판사의 운영비용은 소련 정부의 선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쇄용지 역시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았다. 姜椿芳, 위의 글, 313쪽.

15) 姜椿芳,「『蘇聯文藝』的始末」, 앞의 책, 117쪽.

16) 羅果夫, 앞의 글, 7쪽.

17) 쟝춘팡은 로고포가 러시아어판『시대』지에 실린 글과 타스 통신사의 통신을『시대잡지』의 원고로 제공했다고 회상했다.(姜椿芳,「我與時代出版社: 從『時代』雜誌到時代出版社」, 앞의 책, 309쪽) 그러한 방식이『소련문예』와 문학 서적에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점(新華書店)'이 그 역할을 맡았다. 1937년 7월, 해방구의 정치 및 문화 중심지 옌안에서 '신화서국(新華書局)'이 설립되어 9월 1일부터는 '중공중앙출판발행부(中共中央出版發行部)'에 직속되었다. 10월 초에는 '신화서점'으로 개칭되고 1940년부터 서적 출판을 시작했는데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1944년에는 출판 규모가 확대되어 '위대한 애국 전쟁'을 소재로 한 소련의 소설과 르포를 많이 번역, 출판했다.[18]

두 계열은 중일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소상시대서보출판사'는 '소상시대출판사'로 개칭되고 신문과 잡지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서적 출판을 활발하게 진행했다.[19] 소설에서부터 연극 대본, 정치 논집, 러시아어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장르는 다양했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출판되었다. 내용 측면에서 대부분의 작품은 전후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묘사했다. 이는 일제에 대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통구에서 우회적인 이데올로기 선전을 한 것이다. 해방구의 신화서점 역시 소련의 뜨거운 전후 건설과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을 소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통계에 따르면, '소련'은 '토지개혁', '건설'과 함께 신중국 건국 전까지 신화서점의 세 가지 주요 출판 테마가 되었다.[20]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의 중국어 번역본은 바로 위와 같은 문화적 맥락에서 생산되었다. 1947년부터 『시대잡지』에는 이 작품의 단편적 번역이 실리기 시작했으며[21] 1948년 7월 23일 전에 영어판이 먼저 출간된 후, 10월에는 '북조선'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어판이 2,000부 발행되었다. 번역은 양무[楊沐]가 맡았으며, 발행은 로고포가, 총판은 '상하이 시대서보출판사'가 담당했다. '소상시대출판사'의 출판 관행을 보면 텍스트 선정이 소련 측에 의

18) 牛婷婷, 「政治動員視角下的戰時新華書店出版活動研究(1937-1949)」, 武漢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24~27쪽.

19) 1945년 8월 중일전쟁이 끝난 후 서적 출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1945~1948년 말까지 130여 종의 책을 출간했다. 「時代十年(一九四一-一九五一)」, 『時代』 359, 時代出版社, 1951.

20) 牛婷婷, 앞의 글, 23쪽.

21) A. 吉多維奇 B. 布爾索夫 合作, 何歌 譯, 「工業建設問題: 北朝鮮工業局長訪問記」, 『時代雜誌』 224, 上海時代書報出版社, 1947, 24~25쪽; A. 吉多維奇 B. 布爾索夫 合作, 何歌 譯, 「工業建設一例: '哈季欽'水力發電站」, 위의 책, 25~26쪽; 吉多維奇 布爾索夫 合作, 雷兮 譯, 「和平民主戰士: 朝鮮人民英雄金日成」, 『時代』 246, 時代書報出版社, 1948, 22~26쪽.

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연히도 당시 중공이 주도하던 소련 문학 번역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겉보기에는 북조선 여행기로 보이지만 지나간 전쟁을 회고하며 건설적 사업을 구가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다른 소련 문학 번역 작품들과 궤를 같이 했다. 그런 의미에서 '북조선'은 실제로 '소련'의 또 다른 표현이며 향후 중공 지배 아래 들어갈 '신중국'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1948년 전까지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던 소련이 승전의 기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한 중공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22]을 감안하면 '북조선'을 통해 소련과 중공은 문학 및 문화 협력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소련과 중공 사이의 문학 및 문화 협력 의도는 두 번째 간행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 신중국 건국 직전인 1949년 8월, 『북조선』 이판본은 상하이에서 출간되었다. 번역문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출판사항에서는 여러 변경이 있었다. 같은 해 5월 국민당 정권이 붕괴하고 중공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소상시대출판사'는 '시대출판사'로 개칭되었다. 사장이 쟝춘팡으로 바뀌면서 『북조선』의 발행자도 쟝춘팡으로 교체되었다. 총판은 '상하이 시대출판사'가 맡았으며 인쇄부수는 2,500부였다. 시대출판사의 경우가 중공을 인정하며 출판권을 기꺼이 양도한 소련의 우호적 태도를[23] 반영했다면 신화서점이 『북선 유기』를 동시에 출간한 것은 마오쩌둥의 '대소일변도(對蘇一邊倒)' 정책을[24] 이행하며 소련의 문화 헤게모니에 대한 중공의 겉보기 순응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8월 8일 장제스[蔣介石]와 이승만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제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밝힌 것과 연계해 볼 때, 북한에 대한 중공의 증가된 관심을 알 수 있다.

---

22) 丁常昕, 「從緩衝區到結盟: 新中國成立前後蘇聯的對華政策」,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68쪽.

23) 1949년 1월 아나스타스 미코얀(Анастас Иванович Микоян, 1895~1978)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시작된 소련과 중공 사이의 동맹은 1949년 말부터 1950년에 걸쳐 점차 강화되었다. 丁常昕, 위의 글, 124쪽.

24) '대소일변도'는 마오쩌둥이 1949년 6월 30일에 작성한 「인민민주독재를 논함[論人民民主專政]」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무조건적으로 복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소련과 중공 사이의 협력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부터 동상이몽이었다. 신화서점이 간행한 중국어 번역본은『북조선』과 달리, 어디까지나 중공의 독자적인 문화 기획의 산물이었다. '북선 유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이쩐'이라는 중공 소속의 전문 번역자[25]에 의해 새로 번역되어 둥베이[東北] 신화서점에서 출간되고 '둥베이 신화서점 인쇄소'에서 인쇄되었다. 둥베이 신화서점이 1949년 7월 1일부터 새로 출발한 둥베이서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북선 유기』가 둥베이 신화서점에서 최초로 간행한 서적[26]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첫 인쇄부수 3,000부로 시대출판사를 압도한 이번 출판은 신화서점의 인쇄 실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친위대' 출판사의 '편집 후기'를 추가하고 인명과 지명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조선인 김만선(金萬善)과 최동진(崔東振)의 도움을 받았다는 '부기(附記)'를 첨가하여 시대출판사보다 더 높은 완결성과 정확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이 책에 대한 해방구에서의 번역 역시 단편적인 글부터 시작되었다.[27] 소련 잡지에 실린 글을 독립적으로 발췌하고 번역하여 중공의 독립 출판물에 수록함으로써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난 또 다른 문예 생산 체제의 존재를 드러냈다.

---

25) 이쩐은 1946년부터 1948년 사이 소련의 정치, 외교, 문예에 관한 글을 번역하여 중공 중앙 둥베이국[東北局] 기관지인『둥베이일보[東北日報]』에 기고하였으며, 또한 소련의 문예 이론과 소설을 번역해 둥베이서점[東北書店]에서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둥베이서점이 둥베이일보사에 의해 설립되고 1948년 1월부터 중공 중앙 둥베이국 선전부 직속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쩐은 중공 소속의 전문 번역자였을 것이다. 또한 1946년 1월 9일에 발행된『진차지일보[晉察冀日報]』에 이쩐의 번역문(「돈강이 코사크를 환영하고 있다[頓河在歡迎哥薩克]」)이 실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일전쟁이 끝난 후 옌안에서 둥베이 지역으로 이동한 문화인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6) 1949년 8월에 둥베이 신화서점은 '국제번역총서(國際飜譯叢書)', '소련선전고동총서(蘇聯宣傳鼓動叢書)', '소련교육총서(蘇聯教育叢書)'를 간행했으며 '국제번역총서'에는 북한과 관련된『인민의 북조선[人民的北朝鮮]』도 포함되었다.『인민의 북조선』에는 총 9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조선의 여성[朝鮮的婦女]」은 조선인 '허숙정(許淑貞)'(정확히는 '허정숙')이 작성한 글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련인들의 글이다. 이들은 소련의 잡지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들이다.

27) 예를 들어, 소련 잡지『신세계(Новый мир)』1947년 10월호에 실린 김일성에 관한 글은 우란한[烏蘭汗]이 번역하여 1948년 7월 둥베이서점에서 간행한『지식(知識)』지에 게재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화둥[華東] 신화서점 본사에서 간행한『신화문적(新華文摘)』지에 다시 수록되었다. 紀托維奇 布爾索夫 合作, 烏蘭汗 譯,「朝鮮人民領袖: 金日成將軍」,『知識』43, 東北書店, 1948, 20~22쪽; 紀托維奇 布爾索夫 作, 烏蘭汗 譯,「金日成將軍」,『新華文摘』3(10 · 11), 華東新華書店總店, 1948, 341~343쪽.

둥베이서점이 둥베이 신화서점으로 개칭된 것이 신화서점 일원화의 일부였음을[28] 감안하면 1949년 8월『북선 유기』의 출간은 중공이 중국의 출판업계 — 즉 언론 — 를 통제하면서 '소련'을 포함한 모든 외국 세력을 철저히 배제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그 후『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는 여러 지역의 신화서점에서 여러 차례 재판 및 인쇄되었으며 모두『북선 유기』를 저본으로 삼았다. 반면에『북조선』은 건국 이후 한 번밖에 재인쇄되지 못했다.

## 3. 냉전체제 형성기 협력의 실상과 허상: 혼종적 텍스트의 탄생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는 1947년에 집필되어 가을쯤 완성되었다.[29] 양대 진영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과 겹쳤다. 실제로 이 책은 집필, 번역, 출판의 전 과정에 걸쳐 소련, 북한, 중국 세 나라의 공동 참여가 확인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냉전체제 형성기 세 나라 간의 문학 및 문화 협력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1) 나르시시즘에 빠진 기록자

1946년 2월과 8월에, 북한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와 노동당이 각각 설립되어 소련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조소문화협회(朝蘇文化協會)'[30]의 활동이 소련 작가들의 북한 방문을 촉진시켰다. 1946년 4월경, 이

28) 1940년 3월 진시베이[晉西北] 신화서점이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점들이 생겨나며 각 해방구의 출판을 통제했다. 1949년 2월, 전국 신화서점의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공 중앙 선전부에서 출판위원회를 설립했다. 같은 해 10월, '전국 신화서점 출판공작 회의(全國新華書店出版工作會議)'를 개최하여 '전국 신화서점 일원화에 관한 결정[關於統一全國新華的決議]'을 발표했고 11월 1일에는 '중앙인민정부 출판총서(中央人民政府出版總署)'를 설립하여 전국의 인쇄 및 출판을 관리했다. 신화서점의 일원화 작업은 1951년 말에 완성되었다. 韓姝,「簡述建國前後十年新華書店的成長及貢獻」,『青春歲月』2012(14), 共青團河北省委, 2012, 112쪽.

29) '편집 후기'에서는 이 책이 북한이 광복을 맞이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 탄생했다고 밝혔다. Александр Гитович, Борис Бурсов, *Мы видели Корею*,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1948.2, p.140.

기영과 한설야는 협회 대표로서 소문협 위원장에게 문화교류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각종 서적과 정기간행물의 전달, 소련 배우단의 파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협회의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31] 소문협 중앙위원회 위원인 끼슬로바는 6월 19일에 답신을 보내 조소문협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밝혔다.[32] 이러한 교류의 결과로 '제1차 방소사절단'의 소련 방문과 일련의 소련 기행문[33]이 탄생했으며 소련 작가들의 북한 방문과『우리는 조선을 보았다』의 출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우호적 교류의 산물로『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는 소련에서 첫 간행될 때부터 '양대 진영'의 이미지를 담고 있었다. '젊은 친위대' 출판사의 '편집 후기'에서는 이 책이 한반도에 대한 "소련 독자 - 특히 젊은 독자들"의 큰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첫 시도"로 위치 지어지며 소련과 미국 사이의 "서로 대립된 방침의 투쟁"을 강조한다.[34] '양대 진영'의 대립은 텍스트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특히 '삼팔선'이라는 장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건너편에 남조선이 보였다. 거의 다른 나라와 같았다. 거기서 온 사람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할 정도로 놀라웠다"[35]로 시작하는 이 장은 월북자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북을 선택한 다양한 경력, 계층, 직업, 심지어 성별과 인종의 월북자들이 미국인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소련인의 평등한 태도를 대비

30) 1958년에 '조소친선협회(朝蘇親善協會)'로 개칭된 이 협회는 1945년 11월 11일 평양에서 창립되었다. 1946년 봄에 이기영과 한설야는 각각 협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46년 7월에 기관지『조소문화』를 창간했다.

31) 임유경,「상연되는 미래: 북한 형성기 사회주의 문화기획과 문학」,『현대문학의 연구』79, 한국문학연구학회, 2023, 141쪽.

32) 임유경,「'오빼꾼'과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 해방기 소련기행의 문화정치학」,『상허학보』27, 상허학회, 2009, 236쪽.

33) 다양한 분야와 직종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25명과 인솔자 2명으로 구성된 '제1차 방소사절단'은 1946년 8월 10일에 출발했다. 10월에 귀국한 후 이기영의「現代쏘련의 躍進相 - 訪蘇使節團의 歸國報告大論文」을 시작으로, 이찬, 허민, 이태준 등은 소련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고, 1947년 4월에는 단행본 출간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는 임유경의 위의 논문 229~273쪽을 참조할 수 있다.

34) Александр Гитович, Борис Бурсов, op. cit., p. 140~141. 인용문은 필자가 러시아어에서 직접 번역했다.

35) ibid., p. 48.

하여 설명한다. 이는 남북 대립을 미소 대립으로 연결하며, 다시 일제와의 관계로 이어진다. 소련의 항일 투쟁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신불출의 노래를 빌려 미국을 일제의 후임자로 지칭한다. 이러한 논리는 '두 가지 대학'이라는 장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남북의 대학교육을 각각 친일파 주도의 식민 교육과 항일파 주도의 민족 교육으로 대비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소련을 각각 조선의 식민자와 해방자로 대비하며, 남한의 광복이 실제로 미완의 것이라고 암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소련 저자는 소련, 북한, 중국 간의 항일 투쟁을 통해 형성된 유대를 드러내려고 한다. 특히 제1장에서 기록된 한 조선인 통역사의 전쟁 이야기가 이러한 유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약 50년 전, 한 조선 청년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인삼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만주의 깊은 산속에서 "생명의 뿌리"를 발견하여 죽어가는 소련군 장교를 회춘시키는 이야기다. 이 시기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주의 깊은 산속에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인삼을 찾는 것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한 비유로 해석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이 이야기는 소련, 북한, 중국의 공동 항일의 메타포로 읽힌다. 조선인들이 이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은 항일 투쟁을 통해 확실히 형성된 유대감을 증명한다.

더불어 소련 작가는 소련인에 대한 환영과 소련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을 부각함으로써 소북우호를 드러내려고 한다.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하며 북한의 국기와 김일성의 사진 옆에는 레닌과 스탈린의 사진이 걸려 있고, 심지어 소련 국기마저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소문협 함흥분회의 주석 정율과 부주석 김예인을 통해 "조선인이 소련 문화에 대해 가지는 깊은 경외심을 처음으로 깨달았다"[36]고 전하며, 부위원장 한설야를 통해서는 조선 작가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이 소련 문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힌다.

---

36) ibid., p.11.

흥미롭게도 이른바 소북우호가 평등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소련의 자국 중심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저자가 비판하는 바의 일본이나 미국의 제국주의와 유사한 면이 있다.[37]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소련 저자는 관찰하는 주체로서 활동하고 조선은 단지 피관찰의 수동적 대상으로 남는다. 이반 치스차코프[38] 사령관의 도움으로 김일성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관찰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소련 측에 있음을 보여준다.[39] 결론적으로, "청진, 함흥, 평양"을 포함하여 지리적 특성, 자연경관, 전통문화, 정치적 특징, 문학과 예술, 토지개혁, 산업기술, 여성 조직 및 활동, 보건의료, 종교, 교육, 선거제도 등을 포괄하여 전경식(全景式)으로 묘사된 북한은 소련인의 자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이러한 과도한 자국 중심적 시각은 소련 저자들이 객관적 관찰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

소련 저자들은 자신들을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은인과 건설을 지도하는 선생으로 여기며 자부한다. "조선 인민이 모든 행동을 통해 스탈린 동무, 소련 정부, 그리고 소련군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조선을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이 꿈꾸던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이다"[40]라고 언급한 '편집 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생각은 당시 소련 문화계에서 상당히 통용되는 것이었다. 소련 저자들은 북한의 광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소련의 결정

37) 참고로 김진영은 기토비치와 부르소프의 북조선 인상기가 과거 정복지를 답사했던 제국주의 민족지학자(ethnographer)들의 보고서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진영, 「스탈린의 '태양' 아래: 김일성 형상의 원형을 찾아서」, 『러시아연구』 32(2),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2, 78쪽.

38) 이반 치스차코프(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Чистяков, 1900~1979)는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한 소련 제25군의 사령관으로, 1947년 3월까지 평양에서 소련 군정의 최고 사령관을 역임했다.

39) 1945년 8월부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 전까지, 소련 군정은 정치와 경제를 포함해 북한의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 북한 지도자들의 강연 내용을 검열하고 군 간부의 임명과 승진을 결정하는 한편, 토지개혁 법령을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李爽, 「駐朝蘇聯軍管機構與北朝鮮土地改革芻議」, 『西伯利亞研究』 39(02), 黑龍江省社會科學院, 2012, 58~59쪽; 沈志華, 「蘇聯與北朝鮮政權的建構(1945~1949)」, 『俄羅斯東歐中亞研究』 2015(03), 中國社會科學院俄羅斯東歐中亞研究所, 2015, 32쪽.

40) Александр Гитович, Борис Бурсов, op.cit., p.146.

적 역할을 강조한다. 김일성을 이순신과 비견할 만한 항일 민족 영웅으로 칭송하는 제2장은 1945년 9월 광복 경축 국민대회에서 김일성의 첫 강연이 소련과 스탈린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면서 조선의 독립운동까지 소련의 공로로 편입시키게 된다. 이어서 중국의 만주 지역이 조선인에게 새로운 위험과 우환을 의미하는 반면, 소련만이 조선인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소련, 북한, 중국의 공동 항일 미담을 스스로 반박하게 된다. 결국 소련, 북한, 중국 협력의 신화는 소련의 자국 중심적 이야기로 귀결된다.

북한은 소련 기록자의 시선에 후진국으로 비친다. 첫 장에서 기차와 도로를 포함한 북한의 기반 시설 부족이 수려한 자연 풍경과 대비되며, 이는 북한의 미개함을 암시한다. 전쟁으로 파괴되고 재건되지 못한 기반 시설은 북한이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주의를 겪은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소련 저자들이 기차 이용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식민의 흔적이 남은 북한의 근대화에 대한 멸시를 분명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바라보며 초보 단계에 대한 우월감 역시 드러난다.

> (ㄱ) 트램 정류장에는 조선인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도 우리가 버스나 트램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한 명씩 탑승했다.[41]
>
> (ㄴ) 모두가 일하고 있었다: 남자들, 여자들, 학생들. 기온이 50도에 달하는 엄청난 더위 속에서도 그들은 기쁘게 일했다. 집단 노동에 이미 익숙한 우리 소련 사람들에게 매우 보기 좋은 장면이었다.[42]

이 인용문들을 통해 질서화와 조직화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 문명에 익숙한 '우리'가 평가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조선은 초급 단계, 미숙한 상태로서 '우리'의 동화와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 "조선인을 야만인으로 여기고, 조선을 야만의 상태에서 구해낸 구원자로 자처했

41) ibid., p. 18.
42) ibid., p. 43.

다"[43]는 미국인에 대한 비판이 결국 소련인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매우 풍자적이다.

조선 땅에서 조선식 영수증을 거부하고 "조선과 중국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들"[44]을 불태워 버린 미국인의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면서도 소련 저자에게 동양 문화는 여전히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그런 가혹한 행위는 오직 동양의 일본인들만이 저지를 수 있었다"[45]고 평가하거나 자살 협박을 담은 혈서를 통해 평양대학 입학 자격을 얻은 일을 "동양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사건"[46]으로 지칭하는 것은 동양 문화를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무질서한 것으로 폄하하는 소련 관찰자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시사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장 굴뚝을 "마치 군인의 등 뒤에서 솟아난 총검 같았다"[47]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동양 건축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다. "가장 가난한 조선의 기관에서조차 사적인 집처럼 바닥에 앉는 일은 없었다"[48]고 동양의 좌식 문화를 변화를 기다리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 역시 소련 기록자의 타자화 시선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선은 소련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질감으로 인해 소련 기록자가 끊임없이 북한 문화를 익숙한 언어로 번역하려 하지만 자국 중심적인 해석은 계속 오독을 불러일으킨다. "현재 조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인"[49]에 대해 한 명은 소련 여행 시집을 출간한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크릴로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하는 것과 최시형을 "조선의 푸가초프"[50]라고 부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 존재했던 김삿갓을 전설적 인물 '나스레딘'에 비유하거나 '구운몽'을 "행복한 만

43) ibid., p.73.
44) ibid., p.116.
45) ibid., p.36.
46) Александр Гитович, Борис Бурсов, *Мы видели Корею*, Ленинградское газетно-журнальное и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48.5, p.133.
47) Александр Гитович, Борис Бурсов, op.cit., p.97.
48) ibid., p.15.
49) ibid., p.106.
50) ibid., p.78.

남의 상징"[51]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특히 허위 텍스트를 만나면 오독은 더욱 심해진다.

### 2) 허위 텍스트를 조작한 통역자 · 전달자

기토비치와 부르소프의 여행이 북한 내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되어 '조소우호'라는 정치적 담론에 완전히 흡수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한설야가 자주 언급된다는 사실에서 조소문협과 한설야가 구체적인 접대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 작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북한에 있는 동안 조선인 통역사를 제외하고도 평양으로 가는 길에 김예인, 마을 방문 시 박정애, 함남 공장 방문 때는 한설야와 정율 등 공식적인 인물들이 동행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가는 곳마다 인민위원회가 서둘러 나와 접대했다는 기록이 있다. 소련 작가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기록은 실제로 그들에게 통역되고 전달된 이야기, 궁극적으로는 북한 측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참모장이었던 안길의 인터뷰를 김일성의 개인 비서이자 노어 통역사인 문일이 통역해준 것이다. 북한의 농촌, 공장, 여성에 대한 정보는 모두 북한의 공직자들을 통해서 전해진다. 토지개혁의 성과는 신문에 게재된 미담으로 소개되며, 소련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조선부녀동맹을 통해 전달된다. 이처럼 소련 기록자가 접한 '북한 현실'은 오로지 통역과 전달을 통해 얻은 텍스트에 불과하다.

소련 관찰자가 어디서나 러시아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마치 미리 상대방의 언어로 번역해둔 것처럼, 상대방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이 사전에 준비된 전시물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호텔 웨이터가 소련의 언어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러시아어 간판이 걸린 인민위원회 소속 호텔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소련 만세!』'라고 기록된 부

51) ibid., p.101.

분도 주목해야 한다. 삼팔선 근처 어느 집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다시 편입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집주인이 특별히 누군가를 부탁하여 자신과 아들의 이름, 그리고 '소련 만세'를 담장에 러시아어로 썼다는 이야기다. 집주인이 러시아어를 모르고 글자를 쓴 사람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텍스트의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야기가 전해지는 자리에 집주인조차 없는 것이 문제다.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그 집의 여성들만 등장하며, 통역 없이는 소련인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전달과 통역을 거쳐 겨우 소련 기록자에게 도달한 이야기는 의심스러운 텍스트가 된다. 즉 최종적으로 러시아어로 번역된 '북조선'은 현실과 의심스러운 거리를 두게 된다. 북한에서 "언제나 축제 분위기가 넘쳤다"[52]는 감탄이 나온 것은 결국 소련 관찰자 역시 눈앞의 풍경의 비일상성과 허위성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소련 기록자의 관찰이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된 차량 내에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획되고 제한된 관광이기 때문에 레닌과 스탈린의 사진을 포함한 길가의 풍경이 조작된 텍스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콜레라'라는 장에서 이러한 문제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 북조선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콜레라가 우리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멀었다.
>
> 그날 아침이 생각난다. 우리가 평양의 한 중심가 거리 모퉁이에서 무장한 경찰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거리 건너편으로 밧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도시 중심부의 몇 블록이 밧줄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어떤 곳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콜레라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52) ibid., p.40.

> 이후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포스터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항상 여행 중이었다. (중략)[53]

소련 관찰자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매우 우연한 사건 — 자동차 고장으로 수리를 받는 동안 "우리는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54]는 경험 — 에서 비롯되었다. 정해진 코스를 벗어난 그들은 콜레라 방역을 위한 출입통제 게이트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곳의 화목하고 신나는 명절 분위기와 달리 여기서는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방역 담당자들과 일반인 사이의 지속적인 충돌이 벌어진다. 담당자들이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들은 기만과 침묵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한다. 결국 국가폭력과 일반인 사이의 그러한 균열이야말로 북조선의 현실이 아닌가? 북한 정부가 안내한 코스로 돌아간 소련인들은 이전에 봤던 풍경의 허위성을 깨닫게 되지만 콜레라의 실상은 여전히 그들이 여행 중 우연히 마주치는 선전 포스터에만 국한되어 실제 고통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일부러 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건부를 방문해도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미소대립 의식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담론에 불과하다. 이처럼 북한이 조성한 허위 텍스트에서 탈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역시 간접적인 전달을 통해, 소련의료단을 통해서나마 기토비치와 부르소프는 마침내 북한의 방역 실황을 접하게 된다. 조선 사람들이 소련 의사들을 신뢰하지 못해 환자를 숨기고 사망자를 몰래 매장하는 바람에 소련 의료진이 국가폭력을 빌려 밤중에 관을 열고 시신을 꺼내어 소각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 사례를 통해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조선과 근대 과학을 대표하는 소련 사이의 대립구도가 다시금 확인되는 한편, 양측 사이의 격렬한 충돌과 깊은 불신도 폭로된다. 소련이 조선을 이해하기 어려운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는가 하면 "소련 의사도 일본 의사처럼 전염병이 발견된 마을을 전체 소각할 까 봐"[55] 두려워하는 조선 사람들은 소련의 신탁통치를 일제강점기와

53) ibid., p.124.
54) ibid., p.123.

동일시한다. 소련 기록자들은 소련을 '의사', 즉 북한을 치유해주는 존재로 강조하려 하나 조선 민간에서 소중히 여기는 이야기는 조선인이 간신히 찾아낸 인삼으로 소련군 장교를 살려낸다는 것이다. 이는 소련이 자기 중심적으로 북한을 관찰하듯, 북한 역시 궁극적으로 필요에 따라 소련을 활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저자가 한 절을 할애하여 '소련전시회'에 대한 북한의 중요시를 보여주려 해도 오히려 각자의 관심 분야에만 몰두하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 레닌마저 천도교를 높이 평가한다는 천도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지적하며 소련의 문화적 영향력을 강조하려고 하나, 실제로는 소련의 이론을 북한의 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일들을 당신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56]라고 민주여성동맹 위원장 박정애가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소련인이 조선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동무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민간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을 몰래 숨긴다. 이로 인해 소련인의 북한행은 상하 모두가 조작한 허위 텍스트에 갇히게 된다. 소련 의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환영 대회와 감사 전보라는 공식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처럼 결국 소련인의 기록 또한 공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일제시기의 담론과 남한 신문기사의 작위성을 반복해서 언급한 소련 기록자가 자신의 글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 '편집 후기'에서 "이 책은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북조선의 도시와 마을을 여행하면서 저자들이 목격하고 들은 것들을 전하는 여행기"[57]라고 강조한 것이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심지어 "조선 문학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작가, 비평가, 그리고 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 문학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58]고 통역과 전달의 차단 역할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통제된 담론이 결국 허위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소련인도 조선인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다.

---

55) ibid., p.126.
56) ibid., p.36.
57) ibid., p.140.
58) ibid., p.101.

### 3) 번역자: 또 다른 시각과 입장

내전이 마무리된 1949년 9월에 이르러 중공은 '소련 문화 예술 과학 공작자 대표단'을 초청하여[59] 단란한 사회주의 방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소련의 방문기를 곧바로 중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사회주의 문학 및 문화 협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뿐이었다.

중국인 번역자는 시각부터 소련 기록자와 달랐다. 소련이 우월감을 가지고 뒤처진 동무를 끊임없이 비평하는 것과 달리 중공은 이미 사회주의 선구자가 있음을 자각하며 내전의 고통을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했다. 입장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련의 '편집 후기'에서는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이 중국을 이기고 한반도를 차지했다고 언급하며 러일전쟁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 일본을 한반도의 침략자로 위치시키고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생략했다. 반면 중공은 추가된 '부록'에서 러일전쟁을 청일전쟁과 동일한 침략전쟁으로 명시한다.[60] 이렇게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의 중국어 번역본은 번역자, 기록자, 그리고 통역자 · 전달자의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이 얽힌 혼종성을 드러낸다.

특히 두 가지 문예 생산 체제에서 나온 중국어 번역본이 서로 다른 점을 보여줌으로써 번역이 '다시 쓰기(rewriting)'라는 앙드레 르페브르의 주장[61]을 입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 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

59)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파데예프(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Фадеев, 1901~1956)와 콘스탄틴 시모노프(Константи́н Миха́йлович Си́монов, 1915~1979)를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맡은 총 34명으로 구성된 '소련 문화 예술 과학 공작자 대표단'은 1949년 9월 말 중국에 도착해 11월 2일 귀국했다. 10월 1일 신중국 개국대전에 참가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송칭링[宋慶齡], 리우사오치[劉少奇], 저우언라이[周恩來] 등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기차역까지 맞이하러 나왔다. 또한 보위세계화평대회(保衛世界和平大會)와 중소우호협회(中蘇友好協會) 설립을 보고 난징, 상하이 등 곳에서 열린 좌담회에도 참석했다. 儲著武,「文化範例: 新中國學習蘇聯文化及文化建設經驗的發展歷程(1949-1956)」,『河北師范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1(01), 河北師范大學, 2018, 25쪽.

60) 「附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概況」, 阿 · 基托維奇 柏 · 布爾索夫 著, 伊眞 譯,『我們看到了朝鮮』, 新華書店, 1950.7, 197쪽.

61) André Lefevere,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Routledge, 1992, p.9.

보겠다.

## 4. 동일한 멜로디, 상이한 변주: 두 중국어 번역본의 비교

이 장에서는 두 가지 중국어 번역본의 초판본 — 즉, 1948년 10월 '시대서보출판사'에서 출간된『북조선』과 1949년 8월 신화서점에서 출간된『북선 유기』— 을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중공 문예 생산 체제에서 나온 '북조선' 담론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두 책은 동일한 원본[62]을 직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북조선』의 초판은 1949년 8월 이판본과 내용상 차이가 없어서 시간차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북선 유기』는『북조선』에 비해 높은 완결성과 정확성을 보였다고 앞서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이쩐의 번역은 더 정확하고 '번역자'에 대한 인식도 보다 과학적이다. '20800'을 '2만'으로 대충 번역한[63] 양무와 달리 이쩐은 숫자를 비롯한 정보를 정확히 번역하려 노력했다. 양무가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를 큰 고민 없이 음역을 한 반면, 이쩐은 조선인의 도움을 받아[64] 더 성실한 번역 태도를 보이며 텍스트를 넘어 '북선'과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구축을 시도했다는 점을 드러냈다. 또한 양무는 번역자와 저자의 구분 없이 인용문의 화자를 생략하고 평서문으로 전환해 사실인양 서술하며, 설명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원문에 추가했다. 예를 들어, 저자가 한반도 분단을 1947년 초까지 설명하는데 양무는 1947년 7월까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된 것이 미국의 방해 때문이라고 원문에 부연했다.[65] 이와 대조적으

62)『북조선』이 1948년 5월에 발간된 러시아어판 제2판을 포함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1948년 2월에 출간된 초판본을 저본으로 한 것은『북선 유기』와 마찬가지다. 러시아어판 초판과 제2판을 비교한 결과『북조선』과『북선 유기』사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러시아어판의 차이에서 기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63) 吉托維奇 布爾索夫 合著, 楊沐 譯,『北朝鮮』, 時代書報出版社, 1948.10, 105쪽.

64)『구운몽』의 제목과 저자, 그리고 이기영의 한자 이름이 잘못 표기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도움을 준 조선인 두 명은 지식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65) 吉托維奇 布爾索夫 合著, 楊沐 譯, 앞의 책, 8쪽.

로 이쩐은 추가 내용을 괄호 안에 명시함으로써 원문과 구별했다. 신중국 건국 직전 해방구에서 이미 옌안 시기부터 중공을 따른 충성스럽고 전문적인 소련 문학 번역진을 형성했고 그들의 전문성이 국통구를 넘어섰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쩐의 번역은 더 유창하고 표현력이 강하다. 예를 들어, "그 청년은 마차의 주인과 말다툼이라도 하듯 긴장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66]는 이쩐의 번역이 "청년은 마부와 창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무슨 논의라도 하는 듯했다"[67]는 양무의 번역에 비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이와 같은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은 현재『북선 유기』가 더 유창하고 이해하기 쉬워 보이는 것이 논리에서부터 어휘 사용에 이르기까지 신중국의 화법과 유사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운좋게 우리는 김일성 본인과 몇 차례 길게 대화를 나눴다"[68]는 양무의 표현에 비해 "김일성 본인과 몇 차례 길게 대화한 것을 행복하게 느꼈다"[69]는 이쩐의 표현은 신중국 초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숭배와 가깝다. '조선 국왕', '봉건제도 아래의 소귀족', '농부' 등『북조선』의 용어들이 민국시기나 소련 스타일이라면 '조선 통치자', '봉건 관료', '농민' 등은 오늘날 중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즉, 오늘날 중국의 화법은 바로 이쩐을 포함한 해방구 중공의 화법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용지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북조선』은 내용을 상당히 축약했다. 장절을 합치고 설명이나 묘사를 간략하게 했으며 구체적인 인명, 신문명, 통계숫자 등을 많이 없앴다. 지나친 삭제로 인해 '삼팔선'이라는 장절이 월북자들의 이야기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텍스트의 구조까지 파괴했다. 반면에 승리가 눈앞이어서 상대적으로 물질적 여유가 있었던『북선 유기』는 원문의 본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했다.

중공이 독자적으로 기획한『북선 유기』와 달리, 소련 주도로 제작된『북조

66) 阿 · 基托維奇 柏 · 布爾索夫 著, 伊眞 譯,『北鮮遊記』, 東北新華書店, 1949.8, 140쪽.
67) 吉托維奇 布爾索夫 合著, 楊沐 譯, 앞의 책, 129쪽.
68) 吉托維奇 布爾索夫 合著, 楊沐 譯, 위의 책, 33쪽.
69) 阿 · 基托維奇 柏 · 布爾索夫 著, 伊眞 譯, 앞의 책, 24쪽.

선』은 반미의식이나 '양대 진영' 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며 소련의 정책을 더 많이 반영하는 특징을 보인다.[70] 조선인에 대한 미국의 민족 차별과 그 '언론 자유'의 허위성을 지적하는 '미국인'을 한 장으로 독립시키고 미국을 비판하는 개인의 비평들까지 상세히 기록하며 더 이상 필묵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항일 활동과 기독교계 교육, 그리고 일본인의 역할에 관한 긍정적인 서술은 모두 삭제되었다.

『북조선』에서 소련의 시각이 보다 많이 반영되었다면『북선 유기』는 중공의 정책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은근하게 신정권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삽화를 없앤 것은 "정치적 기준이 우선이며 예술적 기준이 그 다음이어야 한다"[71]는 '옌안 문예 좌담회'에서 밝힌 중공의 문예 정책을 반영한 것이고 중국 민중을 독자로 상정한 현지화 번역은 같은 좌담회에서 주장된 "(중국의) 대중을 위한 문예"[72]를 구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북조선』에서는 러시아어 인명을 그대로 사용했던 반면,『북선 유기』는 그것을 한자로 옮기고 중국 독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의 도량형을 중국 것으로 환산했으며 북한 특유의 개념어를 아예 제거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북선 유기』에서는 북한에 대한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묘사를 삭제하거나 다르게 표현했다. 김두봉의 손이 작다는 묘사를 제거하는 등 북한 지도자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했고 "남의 일에 대한 조선인의 궁금증" 대신 보다 긍정적인 "조선인의 지식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73] 이러한 북한 정부와 국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현재의 북한과 장차 탄생할 신중국을 어느 정도 동일시하고 있었던 이쩐의 경향을 드러내는

70) '시대서보출판사'는 중공의 선전기구이자 소련의 감독 하에 있어 양측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소련 측이 옌안의 방송을 청취하고『시대일보(時代日報)』에 싣는 것을 거부한 후 장춘광은 양측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楊哲 · 宋敏,『中國現代百科全書奠基人: 姜椿芳傳』, 中國文聯出版社, 2006, 125~126쪽 참조.

71) 毛澤東,「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毛澤東文藝論集』(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中央文獻出版社, 2002, 73쪽.

72) 毛澤東, 위의 논문, 57쪽.

73) 吉托維奇 布爾索夫 合著, 楊沐 譯, 앞의 책, 61쪽; 阿 · 基托維奇 柏 · 布爾索夫 著, 伊眞 譯, 앞의 책, 49쪽.

동시에, 북한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그 결과,『북조선』에서 노정된 소련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소원감은『북선 유기』에서는 친근감으로 변화했다. "극동의 인민"을 "동아 각 민족"으로 바꾸어[74] 동아시아의 내부적 시각을 부각했다. 김일성의 초기 유격대를 묘사할 때, "조선 두루마기를 입고 중국 긴자루낫을 들며 만주의 시골길을 걸었다"[75]는『북선 유기』의 표현은 "농부 차림으로 중국식 긴자루낫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녔다"[76]는『북조선』의 표현에 비해 북중간의 우호적 협력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해석될 수 있다.

『북조선』과『북선 유기』는 각각 소련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국통구의 중공 문예 생산 체제와 독자적 역량을 축적해 온 해방구 중공의 문예 생산 체제를 대표한다.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자는 소련의 시각을 반영한 반면 후자는 중공의 의도를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후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화법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 5.『북선 유기』의 정전화(正典化)

이 장에서는『북선 유기』가 정전화된 원인과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신중국 건국 초기 '북조선' 담론의 통합과 재편을 조명하겠다. 우선 건국 이후 이 책의 출판 상황은 다음과 같다.

74) 吉托維奇 布爾索夫 合著, 楊沐 譯, 위의 책, 87쪽; 阿 · 基托維奇 柏 · 布爾索夫 著, 伊眞 譯, 위의 책, 75쪽.
75) 阿 · 基托維奇 柏 · 布爾索夫 著, 伊眞 譯, 위의 책, 26~27쪽.
76) 吉托維奇 布爾索夫 合著, 楊沐 譯, 앞의 책, 36쪽.

[표1] 신중국 건국 이후『북선 유기』출판 상황

| 표제 | 번역자 | 출판사 | 발행지 | 발행시간 | 인쇄부수 | 출판 횟수 |
|---|---|---|---|---|---|---|
| 북조선 유기 | 이쩐 | 중난[中南] 신화서점 | 한커우[漢口] | 미상 | 4,000 | 재인쇄(둥베이 신화서점 1949년 8월판) |
| 북조선 유기 | 이쩐 | 신화서점 | 상하이 | 1949.11 | 2,000 | 초판본 |
| 북조선 유기 | 이쩐 | 미상 | 미상 | 1950.1 | 미상 | 초판본 |
| 북조선 유기 | 이쩐 | 신화서점 | 상하이 | 1950.2 | 미상 | 이판본(상하이 신화서점 1949년 11월판) |
| 북조선 유기 | 이쩐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이판본(1950년 1월판) |
| 북조선 유기 | 이쩐 | 신화서점 | 상하이 | 1950.4 | 10,000 | 삼판본(1950년 1월판) |
|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 | 이쩐 | 신화서점 | 베이징 | 1950.7 | 15,000 | 초판본 |
|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 | 이쩐 | 신화서점 | 한커우 | 1950.7 | 10,000 | 재인쇄(베이징 신화서점 1950년 7월판) |
|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 | 이쩐 | 신화서점 | 충칭[重慶] | 1950.8 | 5,000 | 이판본(베이징 신화서점 1950년 7월판) |
| 북조선 | 양무 | 시대출판사 | 베이징 | 1950.8 | 2,000 | 삼판본(상하이 시대서보출판사 1948년 10월판) |
|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 | 이쩐 | 신화서점 | 광저우[廣州] | 1950.11 | 7,000 | 재인쇄(베이징 신화서점 1950년 7월판) |
|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 | 이쩐 | 신화서점 | 둥베이 | 1950.11 | 3,001~ 5,000 | 재인쇄(상하이 신화서점 1950년 2월판) |
|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 | 이쩐 | 신화서점 | 시안[西安] | 1951.1 | 3000 | 재인쇄(상하이 신화서점 1950년 2월판) |

이쩐의 번역본이 건국 이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49년 11월,『북조선』은『중소학교 추천 도서 목록[中小學課外閱讀書目]』에 포함되었으나[77] 실제로 출간된 것은 '북조선 유기'로 개제된 이쩐의『북선 유기』였다. 1949년 12월 마오쩌둥의 첫 소련 방문은 1950년 상반기『북조선 유기』의 첫 번째 인기몰이를 촉발시켜 4월 삼판본은 인쇄량이 10,000부에 이르렀다. 1950년 7월 '항미원조' 운동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인기몰이를 맞이했는데 단 한 달 만에 25,000부가 인쇄되었을 뿐만 아니

77) '정치과 · 사회과학' 분야의 '국제지식' 항목과 '역사지리과' 분야의 '세계지리 · 외국지리' 항목에 총 두 차례 수록되었다. 生活 · 讀書 · 新知三聯書店 編印,『中小學課外閱讀書目: 附教師參攷書』, 生活 · 讀書 · 新知三聯書店, 1949.

라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는 원제로 개제되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북조선』까지 동원되어 마지막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1950년 10월 26일, 즉 중국 지원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다음날, 중공은 '전국적인 시사 선전을 위한 지시[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를 발표하여 "다양한 예술작품과 팸플릿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78] 그 결과 1950년 11월『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는 세 번째 인기몰이를 맞이하여 북쪽의 둥베이와 남쪽의 광저우를 포함하여 10,000부 이상을 재인쇄했다.[79] 이렇게 건국 이후 이 책은 중소우정의 상징에서 '항미원조' 운동의 선전물로 변모했다.

1950년 7월 베이징 신화서점에서 발간된 초판본『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는 상하이 신화서점 1950년 2월판의 2쇄임을 판권지에 명시함으로써『북조선 유기』와의 연속성을 밝혔다. '부기'에 이어 '부록'을 추가하여 북한의 면적, 인구, 인접국, 공농업, 피식민과 항일의 역사, 분단과 정치 현황, 사회개혁 및 경제 · 문화 발전 등을 다각도로 설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황(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概況)'을 제목으로 한 이 글은 중공의 관영 통신사인 '신화 통신사'가 집필하고 중공 중앙위원회 기관지인『인민일보(人民日報)』1950년 7월 6일자 4면에 게재된 글이었다.『인민일보』와의 동시성과 일치성[80]은『북선 유기』가 '항미원조' 운동의 선전물로서 재출발하면서 신중국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됨을 말해준다. 신중국 초기의 역사 생산과 담론 재편에 참여했다는 것이 바로『북선 유기』가 정전화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북선 유기' 계열이 신화서점에서 간행된 사실을 감안하면 결국『북조선』이『북조선 유기』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1949년 10월부터 시작된 신화서점의 일원화, 즉 언론 및 출판 통제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북선 유기』가 '항

78)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一冊』, 中央文獻出版社, 1992, 436~440쪽.
79) 1951년 1월 이후 갑작스럽게 간행이 중단된 것은 '항미원조' 운동에 대한 중공의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동시에 위문단 파견 등 다른 선전 방식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짐작된다.
80) 이쩐이 1946년에 이미『인민일보』의 전신인『진차지일보』에 번역문을 제공했던 사실을 감안하면『인민일보』와의 동시성과 일치성을 드러낸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원조' 운동의 선전물로 변모한 것 또한 신화서점의 활동과 연계된 결과였다. 신화서점은 중공 지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관련 서적을 적극 간행함으로써 '항미원조' 운동을 지원했다.[81] 그러한 신화서점이 신중국의 출판업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국민당 시기의 주요 출판사들은 타이완으로 이전하거나 해체 및 재편되었고 국통구에 설치된 중공의 선전기관 또한 사실상 폐지되었다. 시대출판사는 1951년 국영 기업으로 전환되어 여러 서점들을 신화서점에 내주고 인쇄소도 신화인쇄소에 넘겼다. 1952년 12월 타스 통신사를 통해 중공 정부에게 무료로 양도된 후 중소우호협회의 관리를 받다가 1956년 말 직원 해산을 거쳐 1958년 2월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 통합되었다.[82]신중국의 담론 통합과 재편은 정치적 배타성을 철저히 하는 방침하에 기관의 통합과 재편을 통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통구에서의 선전사업이 실제로 종료되었기 때문에『북조선』의 2쇄와 3쇄는 판권 정보를 제외하고는 수정된 부분이 없었다. 저자의 이름이나 목차의 쪽수조차 통일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글자와 문장 오류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반면 언론 중심으로의 진입을 위해『북선 유기』는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중난 신화서점에서 출간된『북조선 유기』는 일종의 과도기적 판본이었으며 1949년 11월 상하이 신화서점판『북조선 유기』는 더욱 치밀하게 수정되었다. 인쇄 과정에서 누락된 글자나 기호를 추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며 문장을 더욱 정확하고 유창하게 다듬었다. 인명과 개념어를 포함하여 용어의 사용을 통일하고 까마귀 대신 까치가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북선 유기』의 오역을 수정했다. 특히 '분자(份子)'를 '분자(分子)'로, '존수(尊守)'를 '준수(遵守)'로 변경하고, 나열 시 사용하는 반점을 모점으로 변경하

81) 또한 신화서점은 모금, 무기 기증, 전지(戰地) 문화 복무대(服務隊)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 지원 활동을 펼쳤다. 江林澤,「抗美援朝運動中的新華書店」,『當代中國史研究』24(6), 當代中國研究所, 2017, 80~84쪽.

82) 閔大洪,「"蘇商"時代出版社與『時代』週刊、『時代日報』」,『新聞研究資料』1986(03), 中國社會科學院新聞與傳播研究所, 1986, 142~144쪽. 이쩐은 1950년대 초까지 소련 경제 정책에 관한 책을 번역하다가 아동문학으로 전향했다. 그가 개편한 연환화(連環畵)『지뢰 이사하기[地雷搬家]』는 '항미원조 70주년 기념 시리즈'의 일부로서 2020년에 재인쇄되었다. 반면 양무는 건국 이후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며 '및' 바로 앞의 모점을 제거하는 등, 그리고 따옴표, 풀이표, 생략표 사용을 통일하여 이체자(異體字)를 정리하고 기호 사용을 표준화하는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수정 작업은『우리는 조선을 보았다』까지 이어졌다. 이외에도『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는 중국어 표준화와 화법의 재정립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문법, 도량형, 외래어 사용을 오늘날의 중국어 사용법에 맞게 조정하면서 '러시아'를 '소련'으로, '보건부'를 '위생부'로 변경하는 등 이데올로기적인 용어 변경도 이루어졌다. 중국 출판총서에서 '기호 용법[標點符號用法]'을 발표한 것이 1951년 9월이고 '문자 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이체자 통일안 발표가 1950년대 중반까지 기다려야 했던 점[83]을 감안하면『북선 유기』의 수정 작업은 신중국 초기의 중국어 표준화 및 이데올로기적 화법 정립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는 글자 크기를 줄이거나 줄 간격을 생략하는 등 용지 절약을 위한 전시 선전용 도서의 특성을 드러냈다. 용지와 인쇄 품질도『북조선 유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글자와 기호의 수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반복되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다.

## 6. 나오며

신중국의 '북조선' 담론이 1940년대 소련 문학 번역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중공은 직접 다른 국가를 방문할 수 없었기에 소련인의 북한 방문을 지켜보면서 국통구와 해방구에서 각각『북조선』과『북선 유기』라는 번역본을 생산했다. '소련'의 또 다른 명칭으로 중국에서 등

83) '중국 문자 개혁위원회'가 1954년 12월 23일에 설립되었으며 '제1차 이체자 통일안'은 1955년 12월 22일 문화부와 '중국 문자 개혁위원회'에 의해서 발표되었다.『文字改革』資料室,「建國以來文字改革大事一覽表(1949-1984)」,『文字改革』1984(05), 語文出版社有限公司, 1984, 9쪽.

장한 '북조선'은 신중국의 비전을 담은 동시에 중소우정의 상징이었다. 이후 1950년 7월부터는 '항미원조' 운동의 선전물로 변모하여 신중국 언론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북선 유기』에서 『북조선 유기』를 거쳐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로 변모한 과정은 중공의 언론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상징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절대적인 배타성이었다. 처음부터 소련을 거부하다가 건국 후 신화서점의 일원화를 통해 국통구에 있던 자신들의 문예생산 체제까지 축출했다. 언론 독점을 통해 새 정권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립한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수정 과정을 통해 언어적 차원부터 이데올로기적 차원까지의 화법 재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처럼 '북조선' 담론의 형성은 신중국의 정치 질서 변화와 그에 따른 지식질서의 재편을 반영하며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북조선'의 담론화는 신중국 건국 전후와 냉전체제 형성기에 일어났다. 다양한 정치적 역량의 혼합을 제거하고 드러난 것은 소련, 중국, 북한 사이 협력의 허위성이었다. 소련은 자국 중심적인 해석으로 오독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으며 북한은 의도적으로 허위 텍스트를 조작했다. 번역문의 '다시 쓰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소련과 중국 사이에 통일된 '북조선' 담론이 형성된 바 없었다. 결국 처음부터 나란히 싸울 수 있는 사회주의 동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 책이 '항미원조' 선전용 도서로 활용된 것은 매우 풍자적이다.

필자의 한계로 인해 동시대 중국에 나타난 '북조선' 관련 다른 서적들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찰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A. 기토비차, B. 볼소프 저, 최학송 역,『1946년 북조선의 가을: 우리는 조선을 다녀왔다』, 글누림, 2006.

阿·基托維奇 柏·布爾索夫 著, 伊眞 譯,『北鮮遊記』, 東北新華書店, 1949.8.

_____,『北朝鮮遊記』, 新華書店, 1949.11.

_____,『我們看到了朝鮮』, 新華書店, 1950.7.

郭沫若,『郭沫若全集 文學編 第19卷·今昔集』, 人民文學出版社, 1992.

吉托維奇 布爾索夫 合著, 楊沐 譯,『北朝鮮』, 時代書報出版社, 1948.10.

_____,『北朝鮮』, 時代出版社, 1949.8.

_____,『北朝鮮』, 時代出版社, 1950.8.

姜椿芳,『姜椿芳文集 第九卷』, 中央編譯出版社, 2012.

魯迅,『魯迅全集 第六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編印,『中小學課外閱讀書目: 附教師參攷書』,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4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一冊』, 中央文獻出版社, 1992.

『晉察冀日報』, 晉察冀日報社, 1940.11~1946.1.

『人民的北朝鮮』, 東北新華書店, 1949.8.

『人民日報』, 人民日報社, 1949.10~1953.12.

『時代雜誌』, 上海時代書報出版社, 1947.8~1947.9.

『時代』, 時代書報出版社, 1948.2~1951.8.

『蘇俄評論』, 蘇俄評論社, 1931.10~1935.11.

『文哨』, 重慶建國書店, 1945.5~1945.10.

『新華文摘』, 華東新華書店總店, 1948.9~1948.11.

『新聞類編』, 蘇聯駐華大使館編譯處, 1941.7~1948.7.

『知識』, 東北書店, 1946.7~1948.7.

Александр Гитович, Борис Бурсов, *Мы видели Корею*, Ленинградское газетно-журнальное и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48.5.

Александр Гитович, Борис Бурсов, *Мы видели Корею*,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1948.2.

2. 저서

戈寶權,『中外文學因緣: 戈寶權比較文學論文集』,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3.

楊哲·宋敏,『中國現代百科全書奠基人: 姜椿芳傳』, 中國文聯出版社, 2006.

張盛發,『斯大林與冷戰』,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André Lefevere,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Routledge, 1992.

3. 논문

김진영,「언어의 기념비: 해방기 '조소(朝蘇)친선'의 서사와 수사」,『러시아연구』31(1), 서울대학교 러시아연

구소, 2021.
_____,「스탈린의 '태양' 아래: 김일성 형상의 원형을 찾아서」,『러시아연구』32(2),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2.
이행선,「해방공간, 소련 · 북조선기행과 반공주의」,『인문과학연구논총』36,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임유경,「'오빼꾼'과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 해방기 소련기행의 문화정치학」,『상허학보』27, 상허학회, 2009.
_____,「상연되는 미래: 북한 형성기 사회주의 문화기획과 문학」,『현대문학의 연구』79, 한국문학연구학회, 2023.
陳建華,「從〈俄人寓言〉到克雷洛夫寓言: 談談中國早期的俄國文學譯介」,『中國比較文學』1996(01), 中國比較文學學會, 1996.
儲著武,「文化範例: 新中國學習蘇聯文化及文化建設經驗的發展歷程(1949-1956)」,『河北師范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1(01), 河北師范大學, 2018.
丁常昕,「從緩衝區到結盟: 新中國成立前後蘇聯的對華政策」,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韓姝,「簡述建國前後十年新華書店的成長及貢獻」,『青春歲月』2012(14), 共青團河北省委, 2012.
江林澤,「抗美援朝運動中的新華書店」,『當代中國史研究』24(6), 當代中國研究所, 2017.
李爽,「駐朝蘇聯軍管機構與北朝鮮土地改革芻議」,『西伯利亞研究』39(02), 黑龍江省社會科學院, 2012.
毛澤東,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毛澤東文藝論集』(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中央文獻出版社, 2002.
閔大洪,「"蘇商"時代出版社與『時代』週刊、『時代日報』」,『新聞研究資料』1986(03), 中國社會科學院新聞與傳播研究所, 1986.
牛婷婷,「政治動員視角下的戰時新華書店出版活動研究(1937-1949)」, 武漢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沈志華,「蘇聯與北朝鮮政權的建構(1945~1949)」,『俄羅斯東歐中亞研究』2015(03), 中國社會科學院俄羅斯東歐中亞研究所, 2015.
_____,「若卽若離: 戰後中朝兩黨關係的初步形成(1945-1950)」,『近代史研究』2016(02),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2016.
『文字改革』資料室,「建國以來文字改革大事一覽表(1949-1984)」,『文字改革』1984(05), 語文出版社有限公司, 1984.

# ‘North Korea’ Translated Before and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Focusing on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We Saw North Korea* -

Liu Huiying*

China’s discourse on ‘North Korea’ sprouted in the 1940s in the translation of Soviet literature. *We Saw North Korea*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several times before and after the founding of China, showing the discourse process of ‘North Korea’. It emerged as a symbol of Sino-Soviet friendship and was reborn as a promotional material for Korean War, entering the center of discourse. It was tied to the change in the political order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knowledge order.

Chinese versions showed a mixture of different perspectives and showed falsehood of cooperation among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and China during Cold War formation period. The Soviets who were narcissistic could not become objective recorders, and the text reached them through interpretation was nothing more than a false text. Translations produced by the two literary production systems in China revealed different visions as a kind of ‘rewriting’.

If the translation produc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oviet Union represented the standpoint of the Soviet Union, the Chinese independent project emphasized the independence of the new regime by implementing the polici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irectly. The latter also participated in historical production and discourse reorganization actively, and became classic

* Associate Professor of School of Northeast Asia Studies, Shandong University

through the unification of Xinhua Bookstores.

**Key words** : *We Saw Nor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translate

논문투고일 : 2024년 3월 31일 ‖ 심사완료일 : 2024년 4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5월 10일